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신상필*

〈차 례〉

1. 왜 다시 대학 교양 교육인가?
2. 대학 교양과 교양으로서의 한문학의 위치
3. 동아시아 문화권과 한문학
4. 교양교육으로서 한문교육의 가능성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고전연구학회가 주최한 <고전문학과 대학 교양 교육 : 고전문학 교양 과목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그 중 한문학 분야에 주목한 것이다. 대학의 교양 교육은 근대 서구 학문 체계의 수용과 역사를 함께 하였고, 고전문학 역시 국문학의 교양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점에서 한문학은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2천년 역사를 축적한 한문학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자국어의 위상 강화로 폐기되었다가, 1960년대 후반 한문학 유산에의 관심과 함께 70년대 초반 대학에 한문교육과가 개설되면서 한문교과 교육이 이루어졌고, 대학 교양으로서의 자리도 잡힐 수 있었다. 또한 한문학에는, 단순히 한문을 표기 수단으로 삼은 문학에 그치지 않고, ‘문(文)·사(史)·철(哲)’로 통칭되는 인문학 적 위상을 지닌다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한문학의 특성은 경세(經世)의 문장으로 문학을 숙성시킨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의미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학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문 교육은 식민지, 한국전쟁, 군부정권, 민주화, 신자유주의의 과정에서 그 특성과 의미망이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교양이 인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의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될 수 있다면, 이제 한문학은 문·사·철을 포괄한 동아시아 인문으로 재인식되어야 함과 동시에 한문학을 비롯한 대학 교양으로서의 고전문학에 대한 진솔한 고민이 경주될 필요성이 요청된다.

주제어 한문학, 교양과목, 한문교육, 고전문학, 인문학, 인간의 상호 이해

1. 왜 다시 대학 교양 교육인가?

흔히 ‘대학’하면 ‘학문의 상아탑’을 떠올리는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목전에는 급격하다 할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의 부족이 대학의 존재 근거에 치명적 암초로 다가선 현실적 난관도 있다. 뿐만 아니라 TV로 시작되는 영화·인터넷의 매스미디어가 구축한 인터넷·영상 세대의 전면화는 교재와 칠판 중심의 대학 강의 역시 프로젝터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환경으로 바꿔 놓았다. 여기에 ‘스펙 쌓기’, ‘교육의 서비스화’, ‘학점 경쟁’ 등의 단어까지 합세하면 대학에 얽힌 급격한 변화와 문제점은 한도 끝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얼마 전 학계를 강타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다시 꺼내기도 무안할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하데 대학에서의 교양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 대학생들에게 교양은 졸업을 위해 채워야 할 학점의 하나이며, 그나마 전공 영역의 중압감에서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던가. 하지만 ‘얼마나 유효할까?’라는 물음 자체에 이미 ‘체념’적 결론이 내려져 있기에, 한국의 대학 상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코 유효한 질문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한국고전연구학회가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고전문학과 대학 교양 교육 : 고전문학 교양 과목 개발을 중심으로>의 주제가 지닌 긍정성, 특히 ‘고전문학’과 ‘과목 개발’의 측면에 주목한 점에 동의하고 싶다.

이제 앞서 언급한 말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인문학의 위기’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자본주의를 동력으로 삼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열풍이 인문학을 대중으로부터 소외시켰고, 그 현상의 파장이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생각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이나 연구자 자체가 아닌 사회적, 혹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인문학의 위기’는 그 내부에서 동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문학 스스로가 자신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의 소통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다. 이 점에서 “문학교육의 첫걸음은 매력 있는 작품을 접하게 함으로써 피교육자가 자연스레 그 매력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데서 시작”¹⁾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는 근래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오른 어느 서적의 저술 배경이, 비록 출판사의 판촉을 위한 선전 문구이기는 하지만, “매년 천여 명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연속 수강하는 전설의 명강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광고 문안을 보더라도 현 대학의 위기, 특히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이 ‘인문학’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것도 같다. 다시 말해 인문학이 언제나 자신을 재평가해주고, 그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이론과 학적 도전에 나설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대중 또한 것처럼 매력 있는 인문학을 무기로 강단 앞에 나서줄 인도자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각이한 전공에서 고민한 연구들이 대학의 교육 현장과 인문학의 문제를 직시하며 변화된 현실을 진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한 논의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이며

1) 유종호, 『왕도는 없다』,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267면.

향구할 수 있는 인문학, 특히 대학 교양 과목으로서의 고전문학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여 보다 확고하게 다질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한다. 지금 본고에 주어진 논의 대상은 고전문학, 그 가운데서도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문학, 한문교육’의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현 시점에서 교양 과목 개발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사실 발표자가 이를 제대로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 함을 먼저 고백해야 하겠다. 다만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대학의 전공과목과 함께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문학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역할을 견지하면서도 현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를 동아시아와 한자문화권이라는 의미망을 시야에 넣어 일단의 견해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2. 대학 교양과 교양으로서의 한문학의 위치

현재 교양으로서의 한문학은 온갖 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난관에 처해 있다. 이는 한때 대학마다 상당한 호황을 구가했던 <기초 한문>, <교양 한문>, <한문의 세계>, <동양의 지체> 등 다양한 한문 교양 강좌들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적 상황이 그대로 대변해 준다. 이들 교양 강좌의 최근 변화 동향과 추이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고려대학교의 경우 필수 교양이었던 과목이 선택으로 전환되었고, 연간 21개의 분반으로 개설되던 한문교양이 2009년의 경우 6개 분반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생활 한자> <실용 한문>과 같이 실용 한자·한자어 중심의 새로 개설된 교양 강좌가 그 빈자리를 채웠고, 축소된 과목의 경우 복구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²⁾

2) 김진경, 「대학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 방안-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한문 관련

한문 관련 교양 강좌가 실용 한자·한자어 학습 중심의 <생활 한자>에게 자리를 내준 상황은 학생들의 요구와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한문, 한문학에 대한 ‘비실용성, 어려움, 고리타분함’ 등의 선입견과 함께 한국어문회를 필두로 한 8개 공인단체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한자급수시험의 열풍이 작용한 바 크다. 이들 한자급수시험은 1992년 한국어문회를 시작으로 이후 1996년 4개 단체가 가세하였고, 여기에 대학 입학과 관계되어 수시입학이나 특기자 전형에 대학 관련학과들이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자격증 확보의 하나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³⁾ 문제는 이렇게 한자급수시험을 경험한 세대가 대학생이 되어 이제는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스펙의 하나로 한자·한자어 관련 교양 강좌를 선호하게 되었고, 대학 교양 강좌의 구도에도 변화를 유발하였다는데 있다. 이야말로 수요자로서의 대학생들과 공급자로서의 대학이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이루어 낸 현상이다.⁴⁾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는 바로 여기, 수요공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 현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 드러난 양상은 결국 수요자의 요구가 사라지는 순간 교양 강좌의 구도 역시 그에 발맞춰 재편될 것임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원래 대학의 교양교육은 영어의 ‘culture’와 독일어의 ‘bildung’의 번역어이며, 전자는 ‘경작(耕作)’의 의미로 심성을 도야해 수확을 얻는다는 데서, 후자는 인간의 품성을 구조화한

수업 사례를 통해, 『한문고전연구』 제19집, 2009, 274-277면; 박영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한문학』 27집, 2004, 323-325면. 전자는 1997-2009년의 고려대 사례를, 후자는 2000년-2003년의 경북대학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3) 진재교, 「현행 한자·한문 급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문교육연구』 19집, 2002.
 4) 이와 비근한 예로 한때 ‘여성문제’와 ‘性’ 관련 교양 강좌들이 학생들의 급격한 관심을 끌면서 각 대학마다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대학 교양 강좌의 수요공급에 부응한 현 교양 교육의 현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문화의 정수와 인간 정신이 만든 최고의 것을 체득해 일상에서 창조적이고도 통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완성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념은 영국의 이튼 스쿨(Eaton School)로 대표되는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 - 옥스브리지, 프랑스의 리세(lycee) - 그랑제콜(grandes ecoles), 독일의 김나지움(Gymnasium) - 유니베르시테트(Universitaet)를 통한 교양 시민층 양성을 위한 유럽의 교양 교육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이후 근대 일본에서 구제고등학교 - 제국대학의 구도로 수용되었다고 한다.⁵⁾ 동아시아 대학 제도의 교양 교육은 이런 역사 과정을 거치며 모습을 갖추어 갔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덕성과 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적 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인간 관계의 사회적 덕목과 우주 질서를 파악하는 철학적 사유 능력의 함양에 주된 내용이 집중되어 있었다.⁶⁾

이 점에서 과연 한국의 대학 교양 교육이 유럽과 일본이 거쳤던 역사적 교양교육 수립의 과정을 얼마나 내면화시켜 소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의 경우 1924년 식민지 상황에서 설립된 경성 제국대학, 해방과 함께 1946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이후 한국전쟁, 군부정권, 경제성장과 민주화투쟁, IMF를 거쳐 90년대 후반 시행되기 시작한 학부제와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현재까지의 도정을 일별해 볼 때, 교양 교육에 대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유럽식 대학제도가 추구한 엘리트주의가

5) 이향철, 『일본대학의 교양교육』,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29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1.

6)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철학』 20권 1호, 2009.

지금은 민주화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다,⁷⁾ 미국식 교육제도의 영향과 함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까지 덮친 상황이다. 어쩌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자기 성찰의 목소리는, 한국 대학 내부의 자성적인 진솔하고 진중한 성찰이기 보다는, 일찍이 진행된 구미를 비롯한 일본의 자기반성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앞서 지적했듯 한국의 교양교육은 근현대사의 노도를 헤치며 급격하게 변화하던 사회에서 그나마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이야 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한국 교양교육의 현실에 바탕한 장기적 전망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이때 한문학의 경우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다. 한문은 근대 초기까지 2천여 년에 달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는 점에서, 마치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문학 역시 그에 값하는 전통과 역사를 지녔거나 자격을 갖추고 있으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교양으로서의 한문학은 학문의 성격과는 달리 그리 긴 전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문학은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리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한문은 근대화와 함께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계몽의 측면에서 학습하기 어렵고 일상의 기록수단으로 적합지 못한 것으로 폐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문학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 했던 것이다. 또한 광복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일제 청산과 사대주의 배격을 구호로 삼은 한글 전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한문은 표기에 필요한 실용한자 위주의 차원에서 고려되었을 뿐이다.⁸⁾ 따라서 한문학은 개별 과목이나

7) 일본의 경우는 이항철, 위의 논문, 독일의 경우는 디트리히 슈바니츠, 『교양』(인성기 외 옮김, 들녘, 2001.)의 <제1부 지식·읽지 않고 건너뛰어도 무방한 학교·교육제도 보고서>(30-44면) 참조.

학과로 성립하지 못한 채 국어과 ‘상용한자’, 또는 중문학과와 중국문학이나 중국철학의 차원에서 교육되는데 머물고 있었다.

그나마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움트면서 1965년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가 정부지원에 의해 국역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운에 힘입어 1973년 한문교육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2년 후 한국한문학회연구회(현 한국한문학회)가 창설되어 점차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⁹⁾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서야 한문학의 연맥이 학문적 차원에서 궤도에 올랐다고 하겠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애초 대학에 개설된 학과가 한문학과가 아닌 한문교육과라는 점이다. 문과대학이 아닌 사범대학에 한문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것이다. 이는 그간 한문 과목이 공교육의 정식 과목으로 자리 잡지 못하다가 이때서야 비로소 중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필요한 교사 양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미이다. 즉 한문교육의 전국적 시행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황은 중등교육에서 한문 교육의 부재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며, 대학 교육으로의 연계도 굴곡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만큼 한문학과 한문 교육은 대학 교양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학의 성격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기초 한문><교양 한문><동양의 지혜><한문의 세계>의 교과 내용은 한문 문장을 통한 중국과 한국의 고전(古典)과 명문(名文)을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들 과목은

8) 이돈석, 『근대 이후 어문정책과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 임형택, 『광복 50년의 한문학, 그 학적 존재와 연구성과』,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상당한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교재가 현토나 구두점이 달린 한문 원문의 형태로 제시되기에 실제 수업 현장은 외국어 강의에 가까워지는 때문이다. 그것도 중등과정의 학습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 더해 ‘비실용성·비체계성’의 딜레마까지 작용한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하면서 한문은 중국 문자, 즉 외국어로 타자화되어 무비판적으로 사장되고 말았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랬던 것이 다시 민족문화의 이해와 해석을 통한 창신의 문체와 결부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 대학의 전공학과와 교양교육으로 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문과 교육개정안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한문과는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전 문언문인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이며, 한문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한문과는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전통 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과이다. 한문과는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¹⁰⁾

한문 학습은 한문 문학의 이해와 그것의 역사적 지혜를 전통 문화의 차원에서 계승·발전하며, 한자문화권에 속한 문화 사이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목표는 이상일 수도 있다. 아쉽게도 국·영·수의 주

10) 교육인적자원부, 『한문과 새 교육과정』, 2007.

요 과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수, 여타 선택 과목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실제 한문과의 원론적 목표는 기초지식을 통한 한문 독해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대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1995년 고려대학교에서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신명심보감(新明心寶鑑)』을 교재로 개발한 <동양의 지혜>가 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하지만 1999년 선택 과목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수강 인원 감소에 따른 폐강의 기로에 이르고 말았다고 한다.¹¹⁾ 이는 단순히 필수 과목에서 선택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결과만은 아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학 한문 강좌가 맞이한 대체적 운명이었다. 근대 초기 근대국민국가에 걸맞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배척받았던 한문은 지금 21세기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에 다시 한 번 시련을 맞고 있다.¹²⁾ 근래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영상, 대중문화, 미디어 및 인터넷, 성 문화, 레저스포츠 등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되기도 하는 대목이다. 실생활에 밀착한 다중의 관심사, 또는 조금은 깊이 익혀두면 좋을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 ‘대학 교양 과목’으로 인식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양과목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새로운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도 분명하다. 다만 시대의 일시적 유행이나 요구에 반응하는 단편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11) 김진경, 같은 논문, 276면.

12) 여기에는 근대 초기 한문학 유산에 대한 평가와 전승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실제 이 시기 신문·잡지의 지면에는 한문학의 존재에 대한 찬성, 반대, 중도적 입장 등의 세 가지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때는 한문학의 공과를 차분하게 정리해 한국한문학의 자체적 학문 논리와 체계를 세울만한 여지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상필, 『1910년대 한문학 인식의 층위-〈매일신보〉 사설을 중심으로』(『한문학보』 18집, 2008.) 참고.

상황에서 교양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를 던져준다.

이 모든 것에서 교양은 의사소통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교양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풍성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양은 억압적 표준, 불쾌한 과제, 경쟁의 형식, 심지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양은 ‘교양’으로 독립해서는 안 되며 테마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양은 인간의 상호 이해를 즐겁게 해주는 의사소통의 양식이다. 요컨대 교양은 정신의 몸, 그리고 문화가 함께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형식이며, 다른 사람들의 거울 속에 자기를 비추어보는 형식이다.¹³⁾

교양은 정신과 문화가 하나의 인격체가 됨과 동시에 수요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 대해 자신을 비추어보는 형식이라고 한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그런 형식과 과정에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양은 이를 근거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의 “의사소통”은 최종의 목표가 아니며 하나의 수단이나 과정에 해당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상호 이해”에 목표가 놓여있다고 해야겠다. 따라서 인용문은 교양이 어떠한 표준, 과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하거나 테마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비추볼 때 어찌면 현재의 교양 과정은 저마다 “억압적 표준, 불쾌한 과제, 경쟁의 형식”의 측면을 일정 정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수단이나 과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문학의 경우 학습자들이 한문학 교양에 얼마만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일정한 난관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언어나 표기수단의 문제이다. 한문 교양 과목의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13) 디트리히 슈바니츠, 같은 책, 693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갈등 가운데 하나이다. 한문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원론적 간극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나아가 독해를 통해 습득한 교양이 대학 내부로는 학제간의 간극을 메워주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과 시대의 격차를 좁혀주며, 지역과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사소통, 즉 인간의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가는 별도의 문제가 되고 만다. 한문학이 지닌 인문적, 교양적 미덕이 한자·한자어·독해라는 표준, 과제, 형식으로 되어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대목이야말로 대학 교양의 탄생과 존재 이유를 한국 대학사회라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한문학의 대학 교양 강좌는, 한자·한자어·고사성어·한문 독해의 학습과는 별도로, 한문 고전의 현대적 해석과 인간 상호 이해의 정립을 가능케 하는 유기적인 커리큘럼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화두가 놓여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와 논의들은 이상적 목표를 재확인하여 강조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의 한자·한문의 접근성을 돕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표기수단인 한문의 벽과 고전 또는 고전문학으로서의 한문학의 현재적 위치를 조율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어려움에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문학은 위치해 있으며, 그 어설픈 위치에서 ‘비실용’이라는 딱지를 벗어버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가 지닌 현실 진단과 함께 한문학의 역사적 의미망을 염두에 두고 교양 과목 개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문학의 현재적 의미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3. 동아시아 문화권과 한문학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은 흔히 ‘서양’에 대해 ‘동양’으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이는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따른 서구의 등장으로 상대화된 개념이다. 애초에는 동아시아 지역, 즉 중국 중심의 문명권을 세계로 인식해 왔다. 대체적으로 중국·한국·일본·베트남에 걸치는 지역을 동아시아 문명권 혹은 한자문화권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한자문명권을 그저 표기수단을 공유하는 지역권에 대한 명칭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이 점에서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문학 역시 ‘한문 문학’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은 하늘의 문[天之文]이고, 산천·초목은 땅의 문[地之文]이며, 시서예악(詩書禮樂)은 사람의 문[人之文]이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기(氣)로써 되고 땅의 문은 형(形)으로 되지마는 사람의 문은 도(道)로써 이룩되는 까닭에, 문(文)을 ‘도를 싣는 그릇이다[載道之器]’라고 한다.¹⁴⁾

조선 건국의 중추적 역할을 한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이숭인(李崇仁, 1349-1392)의 문집에 붙인 서문이다. 특히 이 대목은 전근대 한자문화권의 ‘문(文)’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문(文)’에 대한 “문제는 道에 직결된 人文에 있다. 그래서 ‘문이란 도를 싣는 그릇’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때 ‘문’의 개념도 문학에만 한정시킬 수 없고 인류사회의 제도와 문명을 포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⁵⁾ 인문학의 어원은 이러한 관념에

14) 鄭道傳, 『陶隱文集序』, 『三峰集』 권3,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 ‘文者, 載道之器.’”

15) 임형택,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364면.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언급한 ‘문(文)’, 즉 한문학은 단순히 한문 문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분과학문체제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와 소설 중심의 문학 관념으로 한문학에 접근할 때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언급을 보기로 하자.

경세의 뜻은 유가 사상의 전파이자 동시에 그 이상으로 천하국가를 논하는 문체에 크게 기대어 존재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장의 맨 처음에 서술했듯이, 사고의 문체와 문체의 문체를 분리해서 논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 문이야말로 천하국가를 논함에 적합한 문체였고, 이것이 아니고서는 천하국을 말하는 틀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¹⁶⁾

근대의 문학이 천하국가를 논하는 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문학은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경세(經世)의 문장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에 전파된 한문은 단순히 표기 수단으로 수용하는데 그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인용에서 말하고 있듯 사고와 문체의 문체를 분리할 수 없기에 한문을 자신의 표기체계로 수용한 사대부로 불리는 지식계층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경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한문과 함께 수입된 문화는 정치·경제·사회 제 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쳤고, ‘車同軌, 書同文’의 동아시아 한자문명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인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해되는 교양의 정의는 동아시아 한자문명이 축적해 놓은 인문 정신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16) 사이트 마레시 지음,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현실문화, 2010, 54-55면.

문제는 한문학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화에 따른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자국어(韓語)를 자국의 문자로 기록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축출당할 운명에 처했고,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문학이자 인문학의 위상을 지닌 한문이 동아시아 지역에 2천여 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형성시킨 DNA는 그리 쉽게 바뀔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도 그 영향이 동아시아 생활 도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물론이며, 한눈에 동서양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다. 논의가 방대해지고 에둘러 온 듯하다. 하지만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이러한 의미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제 이를 기반으로 삼아 본래의 논의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대학 교양 과정에 서구 인문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다양한 교양 과정의 커리큘럼이 존재하듯이, 동양 인문학에 근거한 커리큘럼도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물론 현재 대학 교양 강좌에 동양 인문학 강좌가 부재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지금 논의한 한문학의 역사적 위상을 고려한 한문학 교양 강좌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초 한문>, <교양 한문>, <한문의 세계>, <동양의 지혜> 혹은 그와 유사한 제목으로 각 대학에 개설된 한문학 관련 교양 강좌의 구성은, 한자·한자어 중심의 실용 강좌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전자의 두 강좌는 기초적인 한문 문장의 구조를 해설하는 것으로부터 사자성어나 일화·우언의 짧은 문장으로 한문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문학사에서 걸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한국의 산문·사전문(史傳文)·소설(小說)·한시(漢詩)·경서(經書)를 감상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두 강좌는 사자성어·우언·제자백

가 등의 짧으면서도 현대 생활에 관계있는 자료들을 특화 시킨 경우가 많다. 물론 학교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적 경향은 이와 같다.

모든 강의가 그렇겠지만 이들 강좌의 진행은 대체로 교수자의 교수 방법과 능력,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대체로 학생들과의 한문 해석 방법을 교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교수자의 강독과 해석을 단순 필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주요 문장만을 선택해 함께 강독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토론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한문 번역과 씨름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치지 마련이며, 한문의 다양한 문체에 대한 역할과 의미도 맛보기에 그치고 만다. 그나마 조금은 익숙한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 중국 역사에 관한 해설에서야 수업이 활기를 띄곤 한다.¹⁷⁾

이러한 대학 현장의 한문학 관련 교양 강좌의 현실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교양 강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교양 강좌라는 것이 현행 한국 대학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양이 인간 상호 이해와 관련되고, 한문학이 ‘경세의 문장’이자 ‘인문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문·사·철의 통합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한문 문장에 대한 독해와는 별도로 중국과 한국 한문학 유산에 담긴 인문적 소양에 초점을 맞춘 인간 상호 이해의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문 문장의 독해와 그 인문학적 내용을 분리해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문 고전으로서의 문체적·문학적 이름

17) 한문강좌 수강생의 성향과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지희연, 「대학에서의 한문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한자한문교육』 7집, 2001.

다음을 갖춘 문장을 미려하게 번역해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컨대 서간문(書簡文)·기문(記文)·서문(序文) 등에 나타난 상대방에 대한 문안과 축하, 송별, 감사 등의 실용적 글쓰기의 문학적 표현 방식이나, 논(論)·설(說) 등의 의론적 기술 방법 등을 감상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의 기행문, 에세이, 소설, 논설 등에서 한문학 관련 내용을 콘텐츠로 활용해 수업을 진행시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¹⁸⁾ 하지만 이는 한문 독해의 과정을 미려한 번역문으로 대체해 문학적 교양을 소개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미진한 감이 있다. 여기서 나아가 축하, 송별, 감사의 문학적 표현에 담긴 인간 상호의 유대와 표현, 의론적 기술에 드러난 당대 사회에 대한 고민과 실천, 그리고 한시(漢詩)의 운문이나 유기(遊記)에 구현된 자연에의 감상과 동화 등은 현재 우리에게 사라져가거나 부족한 인간 상호 이해를 위한 의사 소통의 '인문적 교양'을 도야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러한 능력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문학과 관련시켜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해 이제 보다 솔직한 자세로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4. 교양교육으로서 한문교육의 가능성 - 결론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문학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인문학으로

18) 콘텐츠를 활용한 실제 연구는 김진경, 전계 논문 참조.

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축적한 채 학문 유산으로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문학을 서양 교양강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마로 대학 교양과정에 전면 배치해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의 분과학문에서는, 한문학이 하나의 학문체계로 개별 학과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축적된 역사적 산물로서의 한문학의 내면이 인문대학 한문학과와의 분과체계와 일대일로 대응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문·사·철’로 일컬어지는 한문학의 내함에는 문학, 사학, 철학적 문제의식이 공존하며, 나아가 정치·경제·과학으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앞서 한문학을 ‘경세의 문장’으로 언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성격에서 근거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세의 문장’으로 인식되었던 한문학이 지금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헌으로만 남았을 뿐 현재 살아서 창작되는 문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문헌들이 우리에게 ‘고전(古典)’이라는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남아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 독자들에게 소환되어 향유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문학은 과거의 인문학이자, 현재의 ‘동양의 고전’이라는 점에서 대학 교양과정으로 수용될 수 있음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때 대학 교양 교과로서의 한문 교양을 대학 분과체계로서의 특정 학과가 독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문의 내면에 기본적으로 문·사·철이 공존하듯, 지금은 분과 학문이 되었지만, 이들 관련 학과의 학자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있고 유의미한 인문학 교양 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문학의 동아시아적 존재 양태와 의미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서구의 역사 경험에서 성립한 대학의 교양 과정과 내용을 동

아시아의 역사 경험과 유산에 단순 적용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현재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되 교양 과정의 대상이 되는 인문학의 내용과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강조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각 학과별로 구성된 교양강좌로 환원되고 말아, 동양적 인문학으로서의 교양 과정을 온전하게 구상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금의 제안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안 사례를 언급해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의 사례이다. 하나는 이미 앞서 언급한 디트리히 슈바니츠의 『교양』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2010)이다. 국내의 사례로는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돌베개, 2004)과 강유원의 『인문古典강의』(라티오, 2010)이다. 지금 이들 저작을 책이 아닌 사례로 소개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들 사례는 실제 강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책이 만들어졌으며, 그 주제가 동서양의 고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필자가 보다 주목한 것은 이들의 강의 방식이 동서양 고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의 문제와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유원의 경우, 2009년 서울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40주 동안 진행된 강의로, 그 서문에 해당하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에서 강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세 가지로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줄 수 있는 책은 고전 밖에 없다”, “공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저 자신에게 고전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클 샌델도 <들어가는 말>에서 “학생들에게 정의를 다룬 뛰어난 철학서를 소개하고,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오늘날의 법적·정치적 논쟁을 다루는 수업”을 통

해 아리스토텔레스, 이마누엘 칸트, 존 롤스 등의 철학을 소개하고 징집, 계약, 인종 정책, 낙태, 동성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고전과 현실 사회의 문제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한다.

지금 이들이 주목한 것은 고전 그 자체가 아닌 현실과의 소통이다. 이 점에서 한문은 그 자체의 경세적 성격을 통해 현재 우리의 고민과 소통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도가 철학의 자연관이 환경론과 연계되어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사회를 외면한 채 원시로의 회귀라는 단순 논리로 귀결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받진 못하고 말았던 듯하다. 그렇다면 이 역시 현실과의 소통이 관건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얼핏 언급한 것으로 간략한 가능성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근래 글쓰기, 말하기 강좌가 교양학부를 중심으로 대학마다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글쓰기, 말하기는 문학을 떠나 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문학적 글쓰기이며, 경세적 성격의 측면에선 논리적 사고라는 논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품문(小品文), 편지글, 기문(記文), 서문(序文) 등이 상대방을 염두에 둔 고품격의 글쓰기 사례이며, 상소문, 논(論), 설(說)은 구체적 현실 문제에 대한 논리적 글쓰기이자 말하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 자료를 교양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활용한다면 현재의 인터넷, 이메일, 핸드폰, 단문문자, 트위터 등이 지닌 익명성, 무관심, 경솔함, 순간성 등의 폐해를 인간애와 배려가 깃든 사고가 바탕이 된 글쓰기 수업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문학이 지닌 환경, 인권, 복지에 관련된 철학적 고민과 역사적 실례를 통해 문사철의 분과학문의 교양적 소통구의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 사회에 대한 반성, 고민과 함께 고전의 주체들이 당대에 고민한 인문적 분투에 대한 이해도 아우를 수 있는 교양강좌가 점

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백했듯이 필자의 한문학 교양 과정에 대한 해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더구나 대학의 교양 정책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성, 보수성, 다양성·복잡성 등의 문제점에 내재한 학문적 영토주의와 전공 이기주의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난맥상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¹⁹⁾ 하지만 앞장의 소결로 언급한 한문학의 역사적 존재 양식을 고려한 현재적 접근 방식과 함께 지금 소개한 이들 사례를 참고한다면 그 가운데 의외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동양 인문학으로서의 교양 과정의 진지한 모색을 제안하며 그 가능성을 『강의』 저자의 목소리로 대신하여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들이 고전을 읽는 이유가 역사를 읽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디딤돌이면서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이기 때문에 지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로 만드는 방법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독법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면서 동시에 미래와의 대화를 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다만 그러한 독법의 필요를 이야기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이 책이 고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²⁰⁾

참고문헌

- 강유원, 『인문古典강의』, 라티오, 2010.
디트리히 슈바니츠, 인성기 외 옮김, 『교양』, 들녘, 2001.

19) 임은정, 「대학교양과정 결정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연구』 25집 3호, 2007.

20) 신영복, <책을 내면서>, 같은 책, 6면.

-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사이토 마레스 지음,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현실문화, 2010.
-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2004.
- 유종호, 『왕도는 없다』,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1.
- 이돈석, 『근대 이후 어문정책과 한문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철학』 20권 1호, 2009, 11-42면.
- 김진경, 『대학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 방안-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한문 관련 수업 사례를 통해』, 『한문고전연구』 제19집, 2009, 273-298면.
- 박영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한문학』 27집, 2004, 321-361면.
- 신상필, 『1910년대 한문학 인식의 층위-〈매일신보〉 사설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8집, 2008, 1257-1280면.
- 이향철, 『일본대학의 교양교육』,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29집, 2001, 97-112면.
- 임은정, 『대학교양과정 결정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연구』 25집 3호, 2007, 81-107면.
- 임형태, 『광복 50년의 한문학, 그 학적 존재와 연구성과』,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501-515면.
- _____,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359-418면.
- 지희연, 『대학에서의 한문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한자한문교육』 7집, 2001, 1-20면.
- 진재교, 『현행 한자-한문 급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문교육연구』 19집, 2002, 179-200면.

ABSTRACT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as University's Liberal Arts and
Chinese Characters's Cultural Area of East Asia

Shin, Sang-phil*

This article was made public with the theme of <Classical Literature and university's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development of classical literature's liberal arts courses> sponsored by the Korea Society of Classical Studies and was paid attention to the Chinese literature field among them. The history of lib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ies gets together with the acceptance of Modern Western learning systems and the classical literature also became to settle down as a liberal arts course of Korean literature.

In this point, although it is regarded that Chinese literature would go through a similar process in a viewpoint of literature, the reality is not like that. First, Chinese literature with the history of two thousand years was disposed due to strengthening of a phase of its own language for establishment of a modern national state, but while the department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was established at universities in the early half of 1970s with the interest of Chinese literature's heritage in the latter half of 1960s, the education of a Sino-Korean subject was carried out and could be also settled down as university's liberal arts. In addition, Chinese literature has characteristics keeping a phase of humanities called as "literature · history · philosophy" without stopping as literature that simply used Chinese characters as notation means. It means that characteristics of Chinese literature like this should together consider a semantic network called Chinese characters's cultural area of East Asia matured with the sentence of statecraft.

* Sungkyunkwan University,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Researcher

In addition, the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as university's liberal arts didn't properly get an opportunity capable of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and a semantic network while going through a process of colony, the Korean War, Juntas, democratization and neoliberalism. At this time, people have a new understanding that liberal arts capable of being defined as communication means for mutual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re Chinese literature as humanities of East Asia including "literature · history · philosophy" and need to devote ourselves to frank worries and efforts on classical literature as university's liberal arts in addition to Chinese literature from now on.

Key Words Chinese literature, Liberal Arts Courses,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Classical Literature, Humanities, Mutual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